

'이야기가 있는 장신구 연구' 중에서 **몸으로 표현된 상상력**

I. 서론

II. 초현실주의와 상상력

1. 초현실주의 정의

2. 몸의 상상력

III. 작품제작 및 설명

IV. 결론

참고문헌

1. 초현실주의와 몸의 상상력, 조윤경 지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2008년
2.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초현실주의>
3. 몸, 멈출 수 없는 상상의 유혹, 허정아 지음, 출판사 21세기북스, 2000년

I. 서론

예술가들의 상상력은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기억과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창작력의 소재로 삼는다. 상상력으로 얻을 수 있는 예술세계는 그 범위가 무한하다. 그 중에서도 예술가들이 가장 많은 상상력을 동원한 소재는 '몸'일 것이다. '몸'은 여전히 21세기 현대미술에서도 빠지지 않는 소재이며 특히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몸'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소재였다. 살바도르 달리는 연인 갈라를 모델로 몸이 나뉘기도 하고, 서랍을 달기도 하고, 배경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상상력이 동원된 그림들을 창작해 내었다. 르네 마그리트도 역시 중절모를 쓴 신사의 등장과 사라진 몸, 몸의 일부가 확장된 모습, 신발이 되어버린 발 등 '몸'이 상상력을 통과하면 독창적인 그들만의 예술적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지각함과 동시에 그것을 다른 것에 적용하며 상상을 시작한다고 한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몸의 지각이 불러온 상상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초현실주의와 상상력

1. 초현실주의 정의와 작가들

초현실주의(超現實主義) 또는 쉬르레알리즘(프랑스어: Surrealism)은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진 문예·예술사조의 하나이다. 인간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여러 작품들을 남겼다.

파리 다다라는 이름처럼, 초현실주의자들은 양차대전 사이에 취리히 다다에 참여했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다. 1924년과 192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초현실주의 선언

(프랑스어: Manifeste du surréalisme)과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운동들에서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대다수 초현실주의자들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이후 초현실주의는 아숄 고르키나 잭슨 폴록 같은 미국 추상표현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상상에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의 학설에서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서 지성을 초월한 꿈이나 무의식(unconscious; 잠재의식subconscious과 구별됨)의 세계를 해방하는 것으로서 초현실적인 미를 창조하려고 했다. 초현실주의의 가장 영향력 높은 주도자는 작가이자 미술 이론가인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 시인인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폴 엘뤼아르(Paul Éluard), 뱅자맹 페레(Benjamin Péret), 시인이자 소설가인 로베르 데스노스(Robert Desnos) 등이다. 그러나 후에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등은 브르통의 노선에 반대하며 부정형(informe; 혹은 비정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 외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예술가로는 장 콕토, 살바도르 달리, 호안 미로, 르네 마그리트, 막스 에른스트, 루이스 부뉴엘 등이 있다. 또 직접적으로 초현실주의 운동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초현실주의자들과 가까이 지냈던 에드몽 자베스 등도 관련하여 거론된다.

초현실주의는 본질적으로 프랑스적이고 서유럽적인 운동이었으나, 그 영향력은 이후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문화계에도 미쳤다. 가령 미국의 거트루드 스타인은 초현실주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아르헨티나의 알도 페에그리니(Aldo Pellegrini)는 스페인어권 최초인 1926년 초현실주의 그룹을 만들고 주도하였다. 중남미의 후세대 작가 마르케스, 푸엔테스 등도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많이 차용하였다. 중남미의 초현실주의 화가로는 특히 프리다 칼로와 레메디오스 바로가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니시와키 준자부리가 일본 시단에서 초현실주의 운동을 이끌어 일본 현대시의 초석을 놓았으며, 이란의 사데크 헤다야트가 쓴 《눈먼 올빼미》는 초현실주의 문학의 걸작이자 이란 현대소설의 최고봉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 문학에서 초현실주의의 대표자로는 이상이 있다.

2. 몸의 상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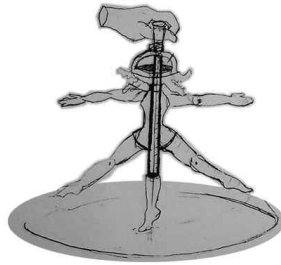
프랑스 시사(詩史)에 의미 있는 획을 그은 두 시인 로트레아몽과 아폴리네르 이래로 초현실주의자들의 '몸'에 관한 맹렬한 탐색은 시작되었다. 이렇듯 초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절단되고, 왜곡되고, 다른 이질적인 요소와 융합되는가 하면, 과장되게 표현되기 일쑤다. 그렇다면 '몸'은 왜 초현실주의 미학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초현실주의자들은 몸에 어떤 예술적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초현실주의자들이 포착할 수 없는 무의식, 초현실, 꿈의 세계라는 추상적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몸'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몸은 욕망과 불안, 무의식을 반영하는 '스크린'이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몸의 회화적 이미지의 유형을 살펴보면, 파편화된 몸, 혼종성의 몸, 왜곡된 몸, 먹을 수 있는 몸, 여성의 나체, 풍경으로서의 몸, 내면으로 향한 눈의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화가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몸을 조각내기도 하고 터무니없이 부풀리거나 다른 것들과의 혼종을 통해, 몸과 영혼 사이의 전통적 이분법으로부터 몸을 해방시켜 몸에 새로운 위치를 부여한다. 이를테면 몸은 마치 스크린처럼 꿈의 세계, 무의식의 비밀스런 영역, 환상, 착란, 존재 내면의 불안함을 투영해 보여주며,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비전의 표현체로 기능하는 것.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표상하는 몸은 우리 몸의 관습적 형태와 미학의 오래된 질서를 끊임없이 문제 삼는다. 몸은 절단되고, 왜곡되고, 다른 이질적인 요소와 융합되며, 과장되게 표현됨으로써 몸 주변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밖과 안,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꿈을 융합한다. 우리는 그들의 그림 앞에서 종종 질문하게 된다. 물체가 육체로 살아나게 되었는가, 아니면 육체가 물체로 굳어지게 된 것인가? 이것이 '내 몸'인가 아니면 '타인의 몸'인가? 몸과 세계의 경계는 어디인가? 초현실주의 세계 안에서 몸과 세계는 영속적인 변용의 욕망에 사로잡혀 지속적으로 상호침투하면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동한다.

Ⅲ. 작품제작 및 설명



수동적 홀로서기와 능동적 홀로서기
_정은, 적동, 금박, 7터 8(H.)x80x95, 10(H.)x55x86mm

그 시선에 익숙해져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식창고의 '헛사고'가 번번히 방해를 합니다.
나를 지시하던 시선이 사라지려 합니다.
내 안에서 작은 존재가 얼굴을 내밀며 자라납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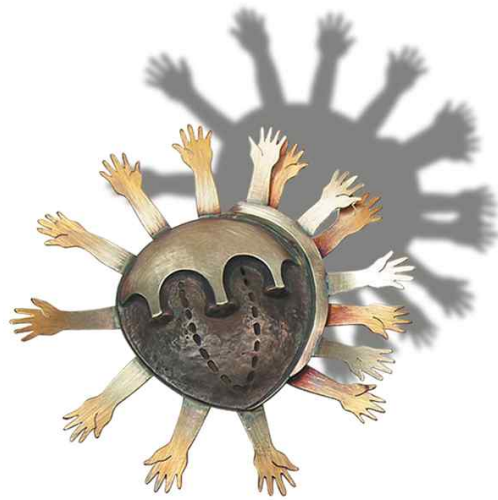
의자로서 의미지어진다 _정은, 적동, 금박 10(H.)x78x75mm

돌려 주세요. 의자에 숙박된 나의 미래를! **6**



거미처럼 된다 _ 전, 정웅 b(H.)x93x85mm

헛사고를 작동시켜 집착거리들을 분류합니다.
수확된 집착거리들은 번데기가 됩니다. 어느정도 잘 발효되면
이리저리 손을 벌려 요리를 시작합니다. 7



수많은 손짓 _ 전, 정웅 15(H.)x98x105mm

내 안에서 수많은 개체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손짓을 합니다.
이들이 나를 뚫고 나오려고 경쟁을 합니다. 만일 한꺼번에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손짓이 존재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여기 있어”라고 9

IV. 결론

'몸'을 소재로 하는 이유는 인간이 맨 처음 만나는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내 손, 내 몸, 내 발 등 내가 맘 편하게 가장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가장 자세히 탐구 할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소유한 몸일 것이다. '몸'은 인간에게 무한한 상상을 불러오는 통로이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몸'을 통한 상상력은 이성의 지배를 벗어나 초월한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들의 욕망이 상상력을 통해 절대 변형 가능하지 않은 인간의 '몸'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